

값싼 노동력과 부당 거래로 착취한 '부의 바벨탑'에 일침... 안창홍 '유령패션' 전

김종목 기자 jomo@kyunghyang.com
2022.03.10 18:22 입력 | 2022.03.10 22:04 수정

안창홍 전시는 언뜻 화려한 쇼윈도를 떠올리게 한다. 원색의 '명품'을 걸친 모델 이미지를 담은 그림이 즐비하다. 그림 가까이 가면, 화려한 이미지는 깨진다. 얼굴과 목, 팔다리가 지워졌다. 옷만 허공을 부유하듯 캔버스에 박혀 있다. 여러 모델의 옷깃에선 피가 뚝뚝 떨어진다.



안창홍 '유령 패션' 연작. 김종목 기자

기괴하면서도 섬뜩한 이미지를 재현한 이 회화 연작 제목은 '유령 패션'이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사비나미술관에서 연 개인전 제목도 같다.

"아주 늦거나 아주 이른 시간 길을 가득 메우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텅 빈 인파로 채워지지 않은 도시의 거리는 '공허' 그 자체이다. 불빛을 찾아 날아든 나방들이라도 쇼윈도에 달라붙어 비늘 가루를 날리며 퍼드득덜 댄 더욱 그렇다. 가까이에서 서서 유리창에 부딪치며 날개뼈 부러지는 소리라도 들을 땐 너무 공허해서 소름이 돋는다. 적막감만 강물처럼 흐르는 텅 빈 도시. 이것이 유령의 도시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안창홍 '작가노트' 중)



작가 안창홍. 사비나미술관 제공

이 유명 도시를 수놓는 건 "사업적 비즈니스를 위해" "음탕한 거래와 유혹을 위해" "더욱 권위적으로 보이기 위해" "상대를 겁 먹이기 위해" "신분의 시각적 허울을 위해" 입은 온갖 종류의 패션이다. 안창홍은 과시 욕망과 허위 의식, 공포와 두려움이 뒤범벅된 유명 패션에서 공허함과 허깨비를 들여다본다.



안창홍 '마스크' 연작. 김종목 기자

안창홍은 “폭력과 억압 때문에 잃어버린 개인 정체성, 현대 사회의 집단 최면 현상과 군중 심리”(미술관)를 담은 ‘마스크’ 연작도 냈다. 이번 전시에는 빠졌지만, 근작인 ‘눈먼 자들’ 입체 연작도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 합성수지로 만든 얼굴에 아크릴로 새긴 건 바코드 무늬나 ‘적자생존’ 같은 글씨다. “자본과 권력 의도대로 위장된 개인 사연, 이 때문에 진실이 밝혀지지 못하는 현실, 집단 최면에 걸려 점차 우민화되는 군중의 모습”(미술관)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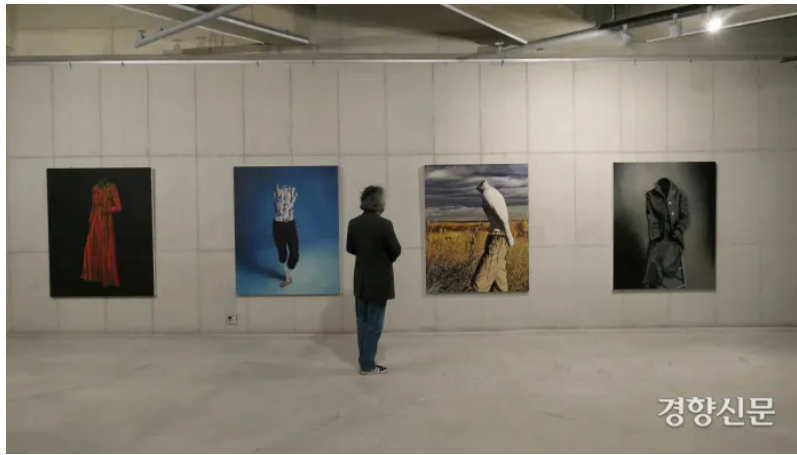
안창홍 ‘눈먼 자들’ 연작. 사비나미술관 제공

안창홍은 집단보다는 개인, 신체 중에서는 얼굴 재현을 변주해왔다. 신산한 자신의 가족사와 산업화 시대 가족 해체를 다룬 ‘가족사진’ 연작(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 작업)에선 눈 부위를 도려내고, 입을 비워냈다. 그 빈자리를 검은색으로 채워 처리하며 ‘죽음’ 같은 걸 떠올리게 만들었다. ‘유령 패션’ 연작에선 신체를 지우고, ‘마스크’에선 눈을 봉대로 감았다. ‘눈먼 자들’ 입체들은 제목과 달리 검정 눈을 크게 뜨고 있다.

안창홍은 개인전에 급진적인 문제의식도 담았다. 일흔을 목전에 둔 ‘원로작가’는 ‘독점자본’, ‘계급’ 같은 소멸되다시피 한 사회과학의 언어를 다시 불러낸다. 작가노트에 이렇게 썼다.

“모든 자본은 도시로 몰려든다. 도시로 몰려든 자본은 이익이 창출되는 거의 모든 것들과 모든 수단으로 거래한다. 자본가는 대부분 값싼 노동력과 부당 거래로 착취한 부로 바벨탑을 쌓는다. 정치권력을 등에 업은 독점자본의 위력으로 이 세상에서 이를 수 없는 게 있거나 한 것일까?” “노동력의 능률을 위해선 노동 계급들이 궁핍과 결핍으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게 해야 한다는 게 그들의 신념이다. 그래도 세상은 별 탈 없이 돌아간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자신의 이익 외에는 관심 두지 않는, 눈먼 자들, 우리들 삶의 형태이다.”

이 글을 읽고 나면 그림 속의 피는 착취당한 노동자가 흘리는 고혈을 상징하는 듯도 하다.



안창홍 '유행 패션' 연작. 김종목 기자

미술 시장 과열 와중에 한때의 민중미술 작품들은 갤러리나 아트페어에서 고가에 팔리는 상품이 됐다. 과거와 별다를 것 없는 유명 원로 작가들의 신작을 두곤 '색의 깊이'나 '붓질의 여유'를 거론하며 상찬한다. 자본과 노동, 계급 같은 개념을 펼치는 이 '원로 작가'의 급진적 미술 언어는 생경하면서도 울림이 크다.



안창홍, '가족사진'(1980), 부서진 얼굴 2-3(2006) 사비나미술관 제공

안창홍은 1980년대 민중미술 운동을 주도한 '현실과 발언' 동인의 일원이었다. 당시 첨예한 비판 의식을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이어간다. 디지털 펜화 연작 150여 점도 이번 전시에 내놓았다. 인터넷에서 수집한 사진 이미지에 그림을 그린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작업했다. '유행 패션' 연작의 원형 작업이다. 전시에 나온 회화·입체는 55점, 드로잉은 85점이다.



안창홍 디지털 펜화 연작. '유령 패션'의 원형이 된 이미지다. 김종묵 기자

신작들은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먼저 선보였다. 라틴아메리카의 불평등과 억압을 그렸던 에콰도르 작가 오스왈도 과야사민(1919~1999)의 한국 특별전(2020년 12월19일~2021년 2월2일) 답방 형식의 전시였다. 에콰도르 수도 키토의 '인류의 예배당'에서 안창홍 특별전을 열었는데, 이 미술관의 해외 작가 전시로는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고야(1746~1828)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전시는 5월29일까지. 7000원.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The Kyunghyang Shinmun, All rights reserved.